



노사, 사태해결 위한 공식대화 시작

출근저지투쟁 일단 보류

노동조합은 사측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강건한 파업 대오를 유지하되 공식 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4일부터 출근저지 투쟁을 일단 보류했다.

양측의 이번 대화는 박 사장의 투표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노조의 성명이 계기가 됐다.

노조는 지난 2일 '사원투표 원한다면 당당하게 심판받으라'라는 성명에서 박 사장의 조건 없는 사퇴라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명시하면서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박 사장의 투표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투표의 성격이 불신임 투표가 아니라 신임(또는 재신임) 투표가 돼야 함

을 못박았다. 투표시기도 4.11 총선 이전으로 가급적 빨리해야 하고, 박 사장에게 공정보도 시스템 개선 등 마지막 봉사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사측은 이같은 노조안이 나온 뒤 지난 3일 공식 협상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

물론 사측은 박 사장의 제안은 박 사장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안으로 협상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박 사장의 투표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자고 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대화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얼마든지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수 있음을 천명했다.

'파업 바자회' 열기 후끈...결혼선물까지 출품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파업 바자'가 조합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3일 오전 10시 사옥 8층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희 조합원의 사회로 열린 바자에는 중고 서적, 팔찌를 비롯한 각종 장신구, 디지털 액자, 주류 등 다양한 물품이 선보였다.

첫번째로 경매에 부친 물품은 삼국지를 20여 차례 독파했다는 구정모 조합원의 '삼국지 전집'. 정가가 8만원

이 넘는 이 물품은 1만원에서 시작해 열띤 경쟁 끝에 3만8천원에 낙찰됐다.

국제뉴스부 조준형 조합원이 '1+1 행사'로 구매한 리바이스 청바지와 태국에서 사왔다는 코냑을 내놓으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코냑은 시중가와 비슷한 5만5천원, 청바지는 2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바자에서 가장 인기를 끈 물품은 보도국 강훈상 조합원의 '물길는 여인상'. 아프리카의 조각가 '은구마 살레'가 봉사활동을 하러 우간다에 방문한 강 조합원에게 즉석에서 이 작품을 깎아주며 "아프리카의 귀한 물처럼 공정보도를 하라"고 당부했다며 민기 어려운 사연을 소개했다.

북한부 노재현 조합원은 남성용 화장품을 들고 나와 관심을 불러모았다. 하지만 제품 소개 도중 2009년 제조됐을 뿐 아니라 사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5천원이란 저조한 가격에 팔렸다.

스포츠레저부 권수현 조합원은 이날 가장 많은 물건

을 내놓았다. 권 조합원은 나이키 운동화, 여성용 화장품 세트, 텔런트 소지집 화보, 플랫폼슈즈, 사해 소금과 머드팩 등을 대량으로 경매에 부치며 '10년 넘는 인터넷 쇼핑 경력'을 자랑했다.

사회부 이지현 조합원이 결혼선물로 받았다는 커피포트는 딸기잼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면서 중고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정가에 근접한 3만원에 팔렸다.

일부 조합원은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거나 낙찰가의 몇 배에 이르는 돈을 내고 물품을 구매하며 강고한 투쟁 의지를 자랑했다. 공병설 노조위원장도 "상경 투쟁을 하는 지방 조합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마시겠다"며 중국산 술을 구매했다.

2시간을 훌쩍 넘겨 바자가 진행됐지만 워낙 많은 물품이 나온 탓에 '완판'을 할 수 없었다. 일부 중고 서적은 행사 후 저렴하게 판매되기도 했다. 이번 바자 수익금은 98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바자를 한번 더 열어달라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조만간 바자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구석구석

-정보통신국 IT개발·운영부

연합뉴스의 IT 인프라는 콘텐츠가 흐르는 '핏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번 파업에 함께 하는 정보통신국 IT개발부, IT운영부 조합원들은 연합의 핏줄을 책임져왔다. 이들이 일을 멈추면 연합뉴스 전체가 멈춰 버린다.

IT개발부는 기사제작시스템과 고객사 배부 서비스, 생산 콘텐츠를 DB화해 검색과 매핑, 통합일정 등 부가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등 내부 시스템과 연합뉴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뉴스리더 등 외부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IT운영부는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한다. 기사 제작과 사진, 영상, 뉴스Y 관련 서버 관리와 시스템 운영 등이 주업무다. 편집국 기사를 서버에서 가공하고 고객사에 배부하는 역할 등 통신사 연합뉴스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수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24시간 관리하느라 야근은 물론 밤샘도 밥 먹듯이 한다. 이로 인해 만성피로에 시달리지만, 국가기간통신사의 IT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 만큼은 하늘을 찌른다.

IT개발부 조합원 8명과 IT운영부 조합원 8명이 이번 파업에 함께 참여 중이다. IT 인프라 관련 조직은 파업 상황에도 필수 인원은 남도록 한 노사협약 때문에 사무

실에서 마음으로도만 파업을 지지하는 부서원들도 있다.

이들은 "비(非)제작 부서인 우리가 공정보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들 하지만, '좋은 사과'를 생산해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의 근간인 공정보도의 틀이 무너지는 것을 구성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었다"고 파업 참여 동기를 설명했다.

사내민주화 후퇴와 인사 전횡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고 한다. 정보통신국은 최근 2~3년 동안 잦은 조직 개편으로 몸살을 앓았다. 불합리하게 주요 보직에서 해임되거나 승진이 누락되는 등 피해를 본 이들이 속출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동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일도 많았다.

IT 인프라 관련 업무는 네트워크, 서버, 보안 등 분야가 특화돼 있어 전문가를 육성해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새 업무를 담당하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업무를 맡기는 등 원칙 없는 인사로 전체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IT분야 조합원들은 우려했다.

게다가 일부 인원이 새로 출범한 뉴스Y로 차출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IT운영부는 막내가 입사한 지 10년이 넘을 정도로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빠져나간 인원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Y 관련 인프라까지 구축하느라 업무 강도가 극한

에 다다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회사는 시설투자에 인색해 IT 조합원들은 열악한 설비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IT운영부 이석규 조합원은 "박정찬 사장과 그 사장이 임명한 국장이 (정보통신국을) 흔들어놓아 부원들의 동요가 컸다"고 전했다.

IT개발부 성의경 조합원은 "아래에서부터 후배들이 팬을 놓고 더는 안 되겠다며 회사를 뛰쳐나가는데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파업이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다른 부서와 지방 사우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부서 특성상 편집·취재 등 제작 부서와 소통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끈끈한 '동료애'가 생겼다고 한다.

이 조합원은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노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호프데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라고 바랐다. 성 조합원도 "이 기획에 편집과 편집 부서 사이에 있던 어색한 틀과 장벽을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감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연합뉴스의 IT 인프라를 책임지던 묵묵함과 굳건함으로, IT개발부와 IT운영부 조합원들은 파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IT 조합원들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외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파업이 끝나면 더 단단한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노조 집행부와 동료들을 믿고 함께 가기로 했으니 가는 데까지 가보자"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